

## ‘근로자 건강이 최우선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최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전반에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웰빙 관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서도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장인들의 건강 문제는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이다. 특히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 중심의 건강 문제 외에도 이제는 사무직에 대한 건강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물론 뇌심혈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이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전체 업무상 질병의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미국의 경우만 보아도 전체 산업재해의 약 60%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의 다양화는 고령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고, 이들에 대한 건강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장해는 근로자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앗아갈 뿐 아니라 노동력의 손실을 의미하고, 이는 생산성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또한 한 사회가 근로자를 어느 정도 잘 보호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환경 변화에 대한 그 사회의 능동적인 대처 정도를 나타내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 전체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그간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산업보건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업 환경 개선과 작업관련성 질환의 예방을 법제화하는 등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한 사회가 근로자를 어느 정도 잘 보호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의 능동적 대처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며, 이 문제는 국가 전체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다.

한 그간의 예방적 차원을 벗어나 직업병 조기 예방기능 강화, 건강진단 내실화, 그리고 평생 건강증진체계 구축 등을 위한 다각적 정책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근로자의 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새롭게 발생하는 작업관련성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직장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는 곳이며, 업무의 특성상 반복된 행위가 되풀이 되며, 집단의 특성이 개인의 생활방식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경영 사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다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노력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이익 증대의 측면에서 사업주들이 예방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건강한 근로자가 튼튼한 기업을 만들기 때문이다.

근로자 역시 '자기의 건강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아무리 좋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도 근로자 자신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근로자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정부와 사업주의 건강증진 활동에 동참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을 흔히 만나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은 무엇보다 최우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건강한 근로자의 땀방울에서 항상 희망찬 내일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